

故 姜求真교수를 추모함

姜求真 교수!

姜教授가 學生擔當學長補를 겸임하던 그 바쁜 자리에 있으면서도 끝내 한마음을 넘기면서까지— 脫稿하여 本號에 발표한 논문 “犯罪의 實質的 意義에 관한 試論”이 「法學」에 남긴 마지막의 遺稿가 되다니! 아직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하느님은 너무 무심하셨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姜교수! 姜教授는 아깝게도 너무 짧은 人生을 살다 갔습니다만 그 짧은 생애를 빈틈없이, 그리고 곱게 살았기 때문에 姜公이 남긴 學問的 업적과 그 뜻은 남아 있는 同學들에게 오랫동안 간직되고 그 빛은 험사리 바래지 않을 것입니다.

姜교수! 姜교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읍니다. 이 사람이 4年前 法學研究所를 맡아 맨 먼저 「法學」을 季刊으로 간행할 구상을 가지고 姜公의 조언을 구했을 때 나에게 준 자극적인 호응과 남다른 아이디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法學」編輯委員으로서 편집회의 때마다 좋은 의견과 코멘트를 해 주던 姜교수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姜교수의 才能과 훌륭한 업적들에 관해서는 여기에 세삼 적지 않습니다. 다만 姜公을 추모하는 이 자리가 「法學」이기에 同誌에 남겨 놓은 姜公의 珠玉같은 논문들을 연대순으로 찾아 적어봅니다. 혹시 빠뜨린 것이 있다면 용서하기 바랍니다.

1. 제12권 1호(1971. 12)

Comparison of the Legal System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

2. 제13권 1호(1972. 9)

Comparison of the Legal system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I)

3. 제15권 1호(1974. 6)

韓國社會에 있어서의 法の 機能

4. 제20권 1호(1979. 8)

人工心肺裝置의 遮斷에 관한 刑法的 考察

5. 제20권 2호(1980. 5)

受刑者職業訓練制度의 實態에 관한 研究 (I)

6. 제21권 1호(1980. 12)

受刑者職業訓練制度의 實態에 관한 研究 (II)

7. 제23권 1호(1982. 3)

司法試驗制度 및 새 公務員任用試驗令에 대한 檢討와 批判

8. 제23권 2호(1982. 6)

刑事訴訟法에 있어서의 訴訟物論

9. 제24권 2·3호(1983. 9)

制裁稅와 租稅犯에 관한 一考察

10. 제24권 4호(1983. 12)

在所者의 法意識에 관한 調查研究

11. 제25권 1호(1984. 5)

犯罪의 實質的 意義에 관한 試論

姜求真 教授! 姜교수의 인생은, 모두가 애석해 하듯이, 너무나 짧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公의 정신적 所産들은 이같이 빛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고이 고이 감드시오. 다시 한번 명복을 빕니다.

1984. 5. 10.

法學研究所長

裴 載

湜